



홈페이지QR



농축환경신문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제1225호(주간)

www.nonguetimes.com

전화 (02) 582-4016 이메일 press@nonguetimes.com

2 농협, '2025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 개최 | 3 제3기 농식품부 2030자문단원 공개모집 | 6 한돈자조금 “한돈의 무한 가능성 확인했다!” | 7 국산 우유의 신선함, 시민과 만나다 | 9 산의 날 맞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아누가 2025’서 더욱 빛난 K-푸드



▲한국기업 부스 방문

글로벌 위상 제고 및 우리기업 격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아누가(Anuga) 2025’에 우리나라가 주빈국(Partner Country)으로 참가하여 케이(K)-푸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주빈국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의 맛, 트렌드를 이끈다(Flavor meets Trends)’라는 주제로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부터, 현재 유행 중인 스트리트 푸드와 글루텐프리·비건 등 미래 지향적인 혁신제품까지 과거·현재·미래의 케이(K)-푸드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10월 4일 개막식에서 전세계 식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빈국 대표로 축하한 송미령 장관은

“케이(K)-푸드가 김치·장담그기 등 전통 식문화의 기반으로, 케이(K)-팝·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와 어우러져 세계인의 식탁과 일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케이(K)-푸드가 케이(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서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개막식 주요 연사들과 함께 오전에는 혁신제품관, 스타트업관 등을 공식 방문하여 전세계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오후에는 통합한국관 및 식품산업협회 선도기업관 등으로 참가한 우리 기업의 부스를 일일이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지의 생생한 반응을 살피는 현장 행보를 펼쳤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통합한국관에 참가한 54개 기업은 이번 박람회에서 1,126건, 69백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지 바이어와 8건, 3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난 회 참가 대비 업무협약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박람회에 참가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한 기업들은 ▲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민·관 협업 한국관 디자인 개선, ▲식품인증(할랄 등)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간담회를 주재한 송미령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3차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케이(K)-푸드 소비자와의 생생한 만남도 가졌다. 농식품부는 한국 치킨과 독일 맥주

와의 만남인 ‘치맥페스트’를 펼

른 현지 한식 레스토랑에서 개최하여 현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송미령 장관은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의 치맥 문화를 소개하고 케이(K)-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에밀리씨는 “케이(K)-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식 치킨을 실제로 맛볼 수 있어 정말 반가웠다.”며, “특히, 독일 맥주와의 조합이 아주 좋았고,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앞으로 자주 찾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미령 장관은 “앞으로도 케이(K)-푸드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케이(K)-컬처·관광 등 케이(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어촌공사 정책정보, 한 번에

관련 정보 카카오톡으로 월 2회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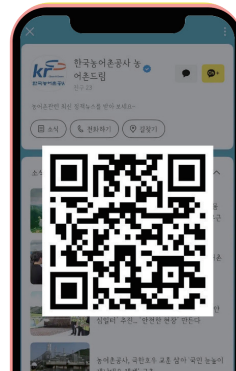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정책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정책 소통 채널 ‘농어촌드림’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드림’은 분산돼 전달되던 공사의 정책·사업 정보를 통합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주요 정책 정보 ▲제도 변경 사항 ▲사업 신청 일정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콘텐츠를 월 2회 발송해 농업인과 유관 단체 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구독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에서 ‘농어촌드림’을 검색하거나 포스터 QR코드(큐알코드)를 통해 접속해 농

어촌드림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공사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박찬수 한국농어촌공사 홍보실장은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분에게 정보가 제때 닿도록 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 고객 의견을 반영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만드는
우리과일 대축제

www.kfruit.or.kr

▲공식 홈페이지

2025 대한민국 과일대전

11.27.(목) - 11.29.(토)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2홀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Korea Fruit Agricultural Co., Federation



▲K-푸드 신제품 홍보관 전경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국산과일 홍보 캠페인 펼쳐

KFruit 유튜브 홍보로 소비자 점점 확대

10월 12일,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한 ‘국산과일 나눔 행사’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한창인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산과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연합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 ‘KFruit’을 구독한 관람객에게 세척사과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KFruit 채널은 국산과일의 품종과 영양 정보, 소비 트렌드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스를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 보러 왔다가 맛있는 사과도 받고 일석이조였다”, “야구장에서 사과를 받다니 색다른 경험이라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등 가족단위와 젊은 층 관람객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산과일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1·2홀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산 과일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한 자리로, 전국 과수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